

국내외 과학기술자간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활성화하자

글 | 한소엽 _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syhan@ewha.ac.kr

대한민국은 올해도 어김없이 4년마다 열리는 월드컵 본선에 올랐다. 월드컵 무대에 1954년 처음으로 진출한 이래 1986년부터 올해까지 연속 6회 본선 출전이라는 대기록은 어느덧 국민적인 자부심이 되었다. 우리는 국가를 대표하는 태극전사들이 경기마다 기적처럼 놀라운 기량을 펼치기를, 그리하여 자랑스럽게 승리하기를 염원하였다. 열심히 '대~한민국'을 외쳤고, 축구국가대표팀 선수들을 뜨겁게 응원하며 격려와 칭찬의 박수를 보냈다. 어느 독일 교포의 말 중 "수십 년 전에 간호사로 독일에 와서 일하며 한국이란 단어만 들어도 항상 눈물이 나곤 하였는데, 이제 독일 경기장에서 한국팀이 축구 강호들과 어깨를 맞대고 경기를 펼치게 되니 너무나 행복해 가족 전체가 응원에 나섰다"는 대목에서는 가슴이 뭉클해지기까지 한다. 세계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표팀에게 기와 혼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 만사 제치고 원정 응원에 나섰다"고 하니, 우리의 나라사랑 응원문화는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축구역사로는 변방의 약소국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터인데, 어느새 이렇듯 성장하게 된 원동력은 무엇일까.

올해 대표팀의 면면을 살펴보면, 해외 축구선진국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거나 과거 훈련 경험이 있는 선수들과 국내에서 성장한 선수들이 서로간의 신뢰와 협동을 바탕으로 집중력, 정신력, 투지와 근성을 발휘하며 시합에 임하고 있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수진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정확히 소재를 파악하고 이들과 긴밀한 상호 커뮤니케이션으로 필요시 적극적으로 국가대표팀에 합류시켜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팀의 기술력과 전술력의 상승에 의한 시너지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성장원동력의 일부본임에는 틀림이 없다.

지난 봄 세계야구선수권대회에서 한국팀은 4강 진출이

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 때도 해외 야구선진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선수들은 모두 개인적인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기꺼이 대표팀에 합류해 국내선수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며 세계대회에 출전했다. 국내외 선수들간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는 드림팀 구성을 가능하게 했고, 한국야구팀은 세계 최강 팀들과 겨루어 전혀 손색이 없는 훌륭한 경기를 보여주었다. 이로 인해 국가경쟁력이 향상되었으며, 국내외 동포들을 모두 하나가 될 수 있었다.

우리 국민은 노력하는 자세가 돋보이거나 훌륭한 업적을 생산하거나 성과가 출중한 사람 등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격려하며 존중해 주는, 정말 따뜻한 성향을 지닌 민족이다. 해외에서 전문직 종사자들이 다방면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는 소식과 이들의 눈부신 활약상이 전파를 타고 국내에 전해질 때도 국민들은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환호한다. 골프·스케이팅·발레 등 체육계, 피아노·바이올린·첼로·지휘·작곡·성악 등 음악계, 영화·설치미술 등 예술계, 과학 및 공학 등 연구계, 교육계, 학계, 산업계, 금융계, 법률계, 언론계, 행정, 시민운동, 의학계, 정책수립, 사회봉사 분야 등의 종사자들이 세계 곳곳에서 탁월한 능력을 펼치고 있음은 국민에게 긍지와 행복감을 갖게 하는 주요 요소이다. 이들 해외 전문직 종사자와 국내 전문가간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통로를 활성화하여 실제적인 상호 협력이 항상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괄적인 기획관리를 한다면, 개인의 발전과 더불어 국가경쟁력을 배가시키는 큰 힘이 됨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국내외 과학기술자간 정례커뮤니티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대회'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과총)은 한국 과학기술사 40년의 발자취를 조명하고 이를 발판으로 앞으로 40년을 새롭게 준비하면서 세계한민족과 학기술자대회(7월 18일~22일)를 개최한다. 대회는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의 유기적 상호 협력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간 상호 협력교류 활성화를 통해 과학기술 역량을 제고하고, 국가 과학기술 주요 아젠다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통해 공감대 형성과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며, 최근 과학기술 동향 및 움직임에 대한 토론과 정보교환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외한민족과학기술자 약 600명(국의 300명, 국내 300명)이 참석하게 되는 명실상부한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들의 축제 한마당이다.

국내외 전문직 종사자간 쌍방향커뮤니케이션 활성화해야

과거 어려웠던 시절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도 당당하게 일어나 선진국가에서 교육받고 훈련된 해외과학기술자들은 귀국해서 국내 과학계와 함께 헌신적으로 과학발전에 공헌하였다. 이들 초창기 국내외 과학기술자 드림팀은 빈약했던 여건에서도 열과 성을 다하여 한국 과학기술연구의 첨단화 및 산업화를 개척하고 지속 발전시킴으로써 조국 근대화를 꾀듯이 이끌어 왔다. 분단과 냉전의 온갖 난국을 거치면서도 경이적인 경제성장으로 신흥공업국으로 급부상한 한국의 발전사에는 국가주도로 과학기술과 산업을 발전시킨 '과학기술추격형 국가발전' 전략의 모범인데, 그 최전방에는 언제나 목표지향적인 성과를 생산해내는 국내외 과학기술자 드림팀이 포진하여 왔다.

필자는 지난 2003년에 공동연구를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공대의 로버트 그립스 교수를 방문했을 때 그 곳에서 다수의 훌륭한 한국인 과학자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 한국인 젊은 과학자들은 한결같이 소속된 연구실에서 핵심역할을 주도하고 있었다. 그립스 교수가 노벨상을 수상한 31번째 캘리포니아공대 교수이니, 그 곳의 수많은 노벨수상자들의 업적에는 연구를 주도하여 온 한국인 과학자들의 공로가 얼마나 혁혁할지 가히 짐작이 된다. 패기 있고 거침없으며 자신감에 차서 창조형 연구 성과를 쏟아내고 있는 젊은 과학기술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제 세계도처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이들 젊은과학기술자들과 함께하는 국내

외 과학기술자 드림팀은 '과학기술창조형 국가발전'을 통해 세계의 미래를 견인해 나아가는 막중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가리라고 확신한다.

해외 한민족과학기술자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해외 각국을 대표하는 한국과학기술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정확하고 치밀한 인적 정보를 확보하고, 이 정보를 실시간으로 국내총괄본부(예를 들면 과총)와 공유하여 다시 전세계로 상호간에 연결하게 하는 탄탄하고 신뢰성 있는 그물망 네트워크의 구축이 절실하다. 이를 통해 연구책임자급 혹은 연구기획평가자급간의 연구 최일선에서의 원활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에 의한 협력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또한 세계무대를 배경으로 믿음직한 경륜을 쌓아온 원로, 전문분야의 세계적 대표성을 소유한 중진, 창조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신진 과학기술자의 적극 유치를 도모하거나 이들과의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유도할 수 있다.

국내·외 한민족과학기술자간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통로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면 글로벌화와 개방화를 토대로 한 세계 정상급 연구기관의 유치 및 국내센터의 해외 이전,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의 핵심기술보유국과의 국제공동연구 비중의 확대, 대기업체의 성공적인 해외진출 효과 극대화 및 중소기업체의 새로운 해외 전진기지 마련 및 활로 개척에도 직·간접적으로 역할을 수행해 낼 수 있다. 활성화된 국내외 과학기술자간 쌍방향 통로를 충분히 활용하면 창조적인 과학기술력의 기여에 의한 세계 속의 자랑스러운 경제대국을 이뤄가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다. 든든한 과거가 있기에 눈부시게 성장한 현재의 우리가 있고, 오늘의 정성을 다하는 노력과 투철한 의지가 있기에 우리의 미래는 너무나도 밝다. ㉔



글쓴이는 이화여자대학교 화학과 졸업 후 동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고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 화학과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애리조나대학교 및 캘리포니아공대에서 방문교수로 활동하였고, 현재 공공기술연구회 이사 등을 겸임하고 있으며, 2006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대회 조직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